

제43회 정기포럼

-행정자치부민간협력지원사업-

---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

- 일시 : 2004년 11월 5일 (금) 오후 1시 ~ 3시
- 장소 :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주관 :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후원 : 충청북도 · 삼성사회봉사단

##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러텍 사장)

박현경 (강원도청보건복지 여성국장)

설계현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a@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오시영

## 차 례

포럼일정 ..... 1

시민자원봉사헌장 ..... 2

### 발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 3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 지정토론1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 11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지정토론2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 17

**김창기 (청주과학대학 교수)**

### 지정토론3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  
..... 21

**이수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 포럼 일정

12:30~13:00      등록 및 접수

13:00~13:20      개회식

- 개회사 : 최일섭(한국자원봉사포럼 고문)
- 축사 : 한범덕(충청북도정무부지사)

13:20~14:30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 발제자 : 이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 지정토론 : 김현옥(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창기(청주과학대학 교수)  
                 이수한(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4:30~15:00      전체토의 및 폐회

# 시민자원봉사헌장

##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발제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총간사장

## 1. 들어가며

이 글은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의 방법론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센터들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체인 센터의 존재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센터들의 경우 많은 경우 지역사회의 중심체,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을 빚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센터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운동의 중심체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 단체들을 포용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2.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단체 지원방안

### 1) 센터 운영 정체성의 확립

센터들은 우선 무엇보다 센터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하는 센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센터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센터가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요 기제이기에 정부가 당연히 설립,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차원에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sup>1)</sup> 기능, 역할 차원에서 “정말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하는 물음에 답하는 개념적 정체성을 말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무엇 하는 곳인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다.<sup>2)</sup> 그러나 쉽고 간단히 말해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곳’이다. 즉,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주민을 모집하고 (혹은 신청을 접수하고) 교

1) 센터의 기능, 역할, 위치 등에 대해선 그동안 센터 내부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성록은 이를 외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고 내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정체성’ 고민이라 표현하며 정책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앞의 글).

2) 미국의 촛불재단(The Points of Light Foundation 1993)을 비롯, 국제자원봉사협회(IAVE 1995), 한국의 행정자치부(2002), 강남대 자원복지문화연구소(1998) 등 수많은 기관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개념정의들을 하고 있다.

육을 시키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된 사명으로 삼는 기관이다. 그 같은 일들이 ‘목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센터는 단체와 차이가 있다.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모집, 교육, 배치 자체가 조직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센터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치’, 즉 봉사자가 실제 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그 배치는 봉사자들을 길거리 등 지역사회 내 특별 장소에 배치, 일을 하도록 돕거나, 기존의 기관·시설·단체 등에 보내 그 수요처의 활동을 돕게 함을 말한다. 이 수요처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 내 단체들 (NGOs, 혹은 NPOs)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센터의 존재이유 (raison d'etre)이기 때문이다.<sup>3)</sup> 더우기 우리와 같이 정부 예산을 들여 센터를 설립,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같은 협력관계가 더욱 더 필요하다.

센터가 수요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센터는 ‘홀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중심사명으로 삼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관과도 다르다. (종합)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타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를 필수적인 기능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수의 센터들은 마치 사회복지관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직접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접 사업’에 더 열중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기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팀 혹은 단체로 까지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지역의 기존 기관 단체, 즉 수요처에 봉사자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봉사센터들은 자신들이 사회복지관과 달리 네트워킹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역의 조직이라는 점을 깨닫고 우선 지역 단체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욱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센터 스스로 이 같은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를 갖지 않고서는 ‘센터=일개 단체’라는 타 지역사회 단체들의 부정적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 전국 248개 센터들중 40% 가까운 108개의 센터들이 한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 센터들의 경우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sup>4)</sup>

## 2)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의 개선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 단체들과의 관계형성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고 있음은 그들의 상급 관리 감독기관들의 센터 평가지표들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5)</sup>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기초 지자체 센터들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 ‘네트워크

3)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내 단체들과 갈등을 빚는 일은 구미 국가들에선 생각할 수도 없다. 센터야말로 단체들이 자원봉사자 모집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선 지역 센터의 경우 주로 단체들이 연합해 센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많은 센터들이 새마을·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 유력단체들 외에 학교·복지관·동사무소 등 수많은 기관 시설, 또 (작은)단체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 및 많은 지역차원에서 센터-(유력)단체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4) 이 점에서는 정부직영, 혹은 관-민 혼합형의 센터들이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들 정부 센터들의 경우 지역 민간단체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연수 등의 사업을 펼치는 사례가 많다.

5) 행자부는 2000년도부터 기초 자원봉사센터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에서도 자체 지표를 개발, 매년 센터들을 평가, 시상하고 있다.



구축'을 아예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대구시, 문광부 등은 '연계 및 안내 프로그램' 항목 중 '수요처에 대한 일감개발 수'라는 평가지표를 지표에 포함치 않고 있다.<sup>6)</sup>

또 4개 기관들 모두 '수요처와의 상담' 이란 수요처 관리지표는 생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에 '자원봉사 관리체계' (등록자원봉사자 수, 봉사자 이력관리 등) 항목에는 20점, '자원봉사 홍보 및 행사' (행사개최 및 지원 7점, 언론보도 실적 3점 등) 항목에는 14점 등을 배정한 반면,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불과 6점 (자문위원회 구성 2점, 수요처 담당자 간담회 운영실적 2점,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간담회 운영실적 2점 등)으로 지극히 낮은 평가점수를 배정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자원봉사센터 관리 기관들부터 센터의 기능과 역할 중 지역단체들과의 관계망 형성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항목에 적어도 20점 이상은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8)</sup>

### 3) 단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센터들이 노력만 하면 타 단체들과의 관계 형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정부 직영의 센터들의 경우 민간위탁 보다 그 관계형성은 좀 더 쉬울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타 단체들과의 경쟁, 대립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 센터들의 경우도 관계 형성망을 구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혹 그동안 불편한 관계가 쌓여 있는 상태라면 시간은 걸릴 것이다. 꾸준한 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부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들이다.

#### (1) 센터- 기관 단체 간담회 상설화

무엇보다 센터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운동의 중심체, 즉 기관 단체 네트워크의 중심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기관 단체간 월례 간담회 등 모임을 상설화해 센터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중심적인 존재임을 알려야 한다. 이 상설모임에 참석하는 기관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유력 기관 단체임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의 정치적 지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작업은 정부직영의 경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 등 정부가 뒤에서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

6) 구혜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 한국자원봉사포럼·한국자원봉사학회, 제3권 1호, 2004. 9.

7) 김운호, '자원봉사센터 평가원칙과 방법', 2004 전국자원봉사센터관리자대회 자료집,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2004. 7.

8) 센터-단체간 간담회 등 네트워크의 부재는 정부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좀 더 그같은 사례가 적은 듯하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센터들 중 직영은 20개, 위탁은 5개소이다. 직영의 경우도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때보다 공무원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때가 네트워크의 강도가 약하게 보인다. 이에 대해선 좀 더 분석적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아예 이 네트워크 항목의 평가 배점을 30점 이상쯤으로 높이면 어떨까?

가 계속 강조하듯 자원봉사센터가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간담회 주최를 (민간위탁) 센터-지자체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관 주도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민간센터를 앞세우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2) 단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센터가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을 그들 기관 단체들에게 배치하고, 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사실 센터가 단체들에게 꾸준히 자원봉사자들을 보내 주는 것만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신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돕는 센터의 일을 비판할 단체가 어디 있을까? 새마을, 적십자 등 큰 단체들도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을 필요로 한다. 센터가 꾸준히 그들 단체들을 대신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켜 보내 줄 경우 점차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일부 센터에서 오히려 한정된 자원봉사자를 놓고 적십자 등 기관 단체와 센터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sup>9)</sup>

## (3) 단체 임직원 교육, 연수

센터가 단체의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사실 몇몇 큰 단체들을 빼고는 단체 임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자원봉사 조직이면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그저 NGO, NPO를 결성해 일을 해 나갈 뿐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단체 지도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을 시켜 나간다면 그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체뿐 아니라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도 센터가 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비는 필요하면 참가자 부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역 센터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나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 (4) 지역 자원봉사 통합 정보망 운영

현재 지역 센터 중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러나 지역 센터가 자원봉사 통합 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전산망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원할 경우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신청을 하고, 교육 및 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통합 전산망에는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들의 자원봉사 수요상황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9) 지난 10월 15~16일 양일간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에서 열린 ‘자원봉사 100인 전문가 초청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센터-단체 간 협력’이란 분과토의에서 적십자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센터들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의 언급처럼 센터가 지나치게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직접 사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 (5) 공동 재난대비 및 구호 시뮬레이션

재난 재해에 대처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어느 지역에 홍수, 태풍, 테러, 폭발 등의 재난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까?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그 중심에 센터가 서 있어야 함을 말할 필요도 없다. 센터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각 단체들에게 업무분장을 시키고 봉사자들을 적절히 조정, 배치해야 한다.

센터가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각 기관 단체들이 자주 센터에 모여 지역사회 재난 재해에 대처하는 공동 시뮬레이션을 연습해야 한다. 그를 위해 센터가 기관 단체들의 신뢰를 얻고 리더십을 가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6) V-타운 운동 실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이란 무슨 뜻일까? 그저 자원봉사의 모든 분야, 모든 대상자들을 포괄해 일을 해 나간다는 정도의 뜻일까? 앞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회의 자원봉사안내센터, 여성 자원활동센터 등이 밀려들 때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특징, 혹은 주된 사업은 무엇일까? 청소년센터의 경우도 장차 기관 단체 간담회, 전산망 등 앞서의 제안 프로그램들 중 상당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 필자가 관계하는 V(볼런티어)-타운 운동을 제안해 오고 있다. V-타운 운동은 마을 주민 들이 모두 나서 자신들의 마을을 자원봉사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됐다.<sup>10)</sup> 이 운동은 가족·교회·학교·기관 단체 등등 지역사회의 각 봉사 단위별로 봉사계획서를 써 낸 뒤 자신들의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월례 V-타운 마을 발표회에서 돌아가며 발표하고, 함께 격려·칭찬·평가 등을 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운동과도 비슷한 것이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 같은 마을 공동체 운동을 벌여 나갈 수는 없을까? 그것이 바로 ‘종합’이 아닐까?

## 3. 마치며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생각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센터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중심(센터)’이라는 확고한 개념 하에 단체들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없는 자원봉사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센터-단체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체들도 센터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하지만 그에 앞서 센터의 자기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

10) V-타운 운동은 지난 96년 필자 등 사회복지학자들이 앞장 서 4개 자원봉사 시범마을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3월 전국 34개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V-타운 운동이라 명칭을 했다. 그동안 행자부 등의 사업 예산지원을 받아 전국협회를 운영해 왔으나 앞장 선 사람들이 운동에 몰두하지 못하고 또 리더십의 부재로 현재는 호지부지한 상태에 있다.





지정토론 1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김 현 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김 현 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토론자는 발제자의 글 표현과 행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원봉사센터의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지역단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거나, 존재한다 해도 심각하지 않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부각 등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발제자의 글에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한 후, 토론자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1) 자원봉사단체의 정체성: 수요처인가 공급처인가?

발제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에 대해 발제하면서 센터를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서 자원봉사단체와 차이가 있음을 잘 지적하였다. 그러나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의 ‘배치’라고 하고, 수요처에 기관·시설뿐만 아니라 단체를 포함하였고 더 나아가서 단체를 센터가 협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수요처이며 ‘존재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체라고 할 때, 발제자는 기존의 큰 ‘유력’단체를 지칭한다.

그러나 토론자는 오늘의 포럼 주제에서 단체라고 할 때 기존 유력단체만이 아니라 작은 풀뿌리단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체들의 구성원을 충원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체 또한 수요처라고 볼 수 있으나, 단체와의 협력이라고 할 때 오히려 수요처로서가 아니라 봉사일감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 공급처로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 2)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직접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가?

발제자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관처럼)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 지적하였다. 그러나 발

제자가 지적하였듯이 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센터의 기능이며, 센터의 정체성이다. 물론 기존의 수요처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수요처가 잘 하도록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거의 없으므로 자원봉사 팀을 조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타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를 필수적인 기능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으나, 사회복지관이야말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동원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타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 3)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네트워킹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발제자는 네트워킹 중심으로서의 센터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민간법인 위탁운영 센터들의 네트워킹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법인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되었고 평가를 받은 후 재 위탁이 결정되며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혹시 발제자는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킹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법인 위탁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각주 4)에서 시사하듯 자원봉사센터가 정부직영, 혹은 혼합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발제자는 곳곳에서 같은 맥락의 논지를 펴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들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정부직영의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센터보다 단체들과의 관계형성이 더 쉽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는 경쟁·대립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운영 위탁의 이유는 센터가 관변단체가 되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트워킹이 센터의 정체성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네트워킹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 4)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의 개선

발제자는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 단체들과 관계형성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그 증거로 그들의 '상급 관리 감독기관'들의 센터 평가지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이고 지표를 만든 소위 '상급기관'의 생각이 짧은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단체들과의 관계형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04년 서울시 평가지표에 '네트워킹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수요처 일감개발 수'도 포함되었다. '수요처와의 상담'이란 지표는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아도 '수요처와의 간담회'로 포함시키면 되었다. 평가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의 네트워크 구축 항목 배점의 상향 조정에 찬성하면서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을 평



가하는 항목에는 ‘수요처 및 단체와의 간담회’, ‘수요처 일감개발 수’, ‘수요처와의 상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사업'의 수도 포함시켜야 하며,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5) 센터 기관 단체 간담회 상설화

발제자는 센터 기관 단체 간담회 상설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체로서의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야 하며, 상설모임에는 정치적 지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유력’단체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기관 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이 기관 단체들이 자꾸 모이는 것은 센터에게 업무 과부하 요인이며 기관단체들에게도 번거로운 일이다. 간담회는 공동의 이슈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력’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의지에 따라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초 사업설명회,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다.

## 2.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자원봉사센터의 사명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진흥·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홍보, 모집하고, 면담, 사정하여 적합한 활동처와 일감에 연결하고,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직무 훈련을 하며, 활동에 대한 지지, 관리 및 인정과 보상 등의 일들을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활동처와 일감을 개발한다.

자원봉사센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한다. 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한다는 의미는 첫째,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할 새로운 봉사단체(팀)을 조직·육성 (Incubating)하는 것, 둘째, 지역 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팀)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 셋째, 지역 내에 조직화되지 않은 채 산재되어 있는 기업이나 친목모임 등 각종 동호회나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봉사관련 단체들이 있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수요단체가 있고(복지관 등 수요처), 공급단체(대부분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적십자사나 새마을과 같은 대형단체들의 지회도 있고, 10명 미만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소규모 단체들도 있다. 크든 작든, 조직의 목적사업이 자원봉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인 단체들도 있고 (지역사회 풀뿌리 봉사단체), 조직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있으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 부서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단(팀)을 조직·운영하는 단체도 있다(적십자사, 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센터 등). 자원봉사자를 공급만 하는 단체도 있고(기업), 자원봉사자를 요구만 하는 단체도 있으며(복지관 등 대부분의 수요처 기관), 자원봉사자를 공급도 하고 요구도 하는 단체도 있다(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모든 지역사회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나아가 그 조직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자원봉사센터가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은 조직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성록 교수의 자원봉사조직분류 유형을 빌려<sup>11)</sup>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지원내용	분산모델 (적십자사)	혼합모델 (복지관)	지역사회 기반모델 (풀뿌리 봉사단체)	특별프로그램 수행모델 (기업봉사단)	비고
1) 개인들의 조직화, 구성원 충원	○	○	○	×	
2) 활동처·일감 소개	△	△	○	○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자문, 정보제공	△	△	○	○	
4) 자원봉사자, 지도자, 관리자 교육훈련	○	○	○	○	
5)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평가	△	△	○	○	
6) 자원봉사활동기록 보관	○	○	○	○	
7) 자원봉사활동 인정, 보상	○	○	○	○	
8) 조직의 효과적 운영 자문	△	△	○	○	
9) 단체(팀)간 네트워크 형성, 촉진	○	○	○	○	
10) 회의실, 기기 대여	○	△	○	○	
11) 사업비 지원	○	○	○	×	

모범적인 자원봉사센터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센터들이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센터들이 아직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 등,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 중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1) 이성록 교수는 자원봉사단체의 유형을 집중모델, 분산모델, 혼합모델, 지역사회기반 모델, 특별프로그램 수행모델 등 다섯 가지로 잘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을 차례로 들면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복지관, 풀뿌리 봉사단체, 기업봉사단이다. 이성록, 자원봉사센터 정체성과 혁신방안, 2004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 한국자원봉사센터, 2004 참조



지정토론 2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김 창 기

<청주과학대학 교수>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김 창 기  
청주과학대학 교수

‘자원봉사활동의 봄’의 시대라는 말<sup>12)</sup>이 있듯이 전사회적으로 자원봉사의 시대를 열어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주민을 모집하고 (혹은 신청을 접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된 사명으로 삼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단체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발표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토론자의 부족한 지식을 토대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체성확립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제시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이러한 정체성은 기관내부의 바른 정체성확립과 외부 지역사회단체들의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표자의 제기대로 인식의 변화를 갖지 않고서는 ‘센터=일개 단체’라는 타 지역사회 단체들의 부정적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센터와 지역사회 기관단체간의 간담회를 상설화 할 것을 제시하면서, 정부직영의 경우와 민간위탁의 방법 그리고 공동운영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센터는 전무한 실정이고, 전국 행정관서가 ‘자원봉사계’ ‘자원봉사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공통적으로 정부 내에 우리와 같은 자원봉사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정부가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일본 영국은 그 기능을 모두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김성이·박영희 편저, 2003:91). 우리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정부는 민간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할은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사단법인화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셋째, 마치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유래 없는 자원봉사법을 만드는 상황을 언

12) 이 말은 영국의 청년자원봉사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특별위원회와 기금을 위한 청년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던 당시의 변화를 설명하던 단어이다(Sheard,1995:115).

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해에 약간의 이견이 있음을 제시하고 싶다. 본 토론자의 식견으로는 일본에서는 1968년도에 자원봉사기본 육성요강이 제정(김성이·박영희 편저, 2003:91)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1973년에 국내 자원봉사법이 제정되고, 1990년도에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을 새로이 제정(류기형외,2003:103)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공 자원봉사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발표를 통해서 발표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중심(센터)’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이에 대한 좋은 대안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위상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홍보 전략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토론을 마칠까 한다.

#### <참고문헌>

류기형외, 2003. 자원봉사론. 양서원

김성이·박영희편저, 2003. 자원봉사총론. 양서원.

Sheard, J.1995."From Lady Boun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s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London: Routledge.





지정토론 3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

이 수 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토론

이 수 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 1. 들어가는 말

빈곤이나 질병, 고통,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 역사 속에 내재해 왔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문제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투쟁해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사회제도(가족, 부락, 민속적 관행, 종교 등)속에는 이미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는 열망에서의 자원봉사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참여계층과 분야가 다양해진 현대의 사회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필요로 하게되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일 것이다. 이처럼 서로 돕기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단체들간에는 협력보다는 갈등이라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 센터와 지역사회 단체들간의 관계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발표자의 의견은 자원봉사 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센터의 정체성은 정책적·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마련과 자원봉사 센터 자체의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만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 함께 나누고 싶은 말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마련이다. 발표자는 자원봉사 센터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자원봉사 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하는 물음에 답하는 개념적 정체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물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진흥법과 같은 법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배치하는 등의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담당할 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이 확보되어질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즉 자

자원봉사 센터가 발표자의 의견대로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권한이 법으로 위임되어야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침까지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발표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들(센터-기관·단체 간담회 상설화, 단체 자원봉사 활동 지원, 단체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지역 자원봉사 통합 정보망 운영, 공동 재난대비 및 구호 시뮬레이션 등)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즉 자원봉사 센터가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될 때만이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sup>13)</sup>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센터 자체의 역량강화이다. 아무리 법으로 정체성이 확보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으로는 동기부여, 모집, 교육 및 훈련, 직무설계와 업무분장, 인정과 보상 등이 있다. 자원봉사 센터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모든 자원봉사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자원봉사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센터는 발표자의 의견대로 이러한 기능 자체가 조직의 목적사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며 자원봉사 센터는 역량강화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역량강화는 센터의 임직원만을 가지고 이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 사회 조직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자원봉사의 정신과도 상응하는 일이라 하겠다.

### 3. 제안하고 싶은 말

먼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진흥법(안)의 방향성 제고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성과 선구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므로 그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새로운 활동분야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안)은 자원봉사활동 전체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합 형태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센터가 지역 내에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sup>14)</sup> 그동안의 자원봉사 센터는 발표자의 주장처럼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직접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

13) 정부직영 자원봉사 센터들이 지역 민간단체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연수 등의 사업을 펼치는 사례가 많다는 발표자의 주장도 이와 관련되어진다 하겠다. 공인기관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도 민간기관이 주도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4) 어느 부처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센터의 주무부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센터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주무부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겠다.

는 직접사업에 더 열중함으로써 일반 자원봉사단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역할 또한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인력, 운영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자원봉사 센터 및 봉사단체와의 연계·연대활동,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의 운영 및 활성화,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 및 정책 건의, 지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지역자원봉사단체의 운영자·관리자 교육 및 훈련 등 종합자원봉사센터로서의 총괄적인 각 기능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와 교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즉 센터는 각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해주고,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한 욕구에 따라 직접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 배치시켜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자원봉사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 개발한 자원봉사자만이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관리해 나간다면 자원봉사 활동 인증이나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 적용, 포상 등의 인정과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력을 갖추어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봉사자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관계를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제시한 발표자에게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천현장의 기관장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275-20-085456 / 제일은행 예금주 :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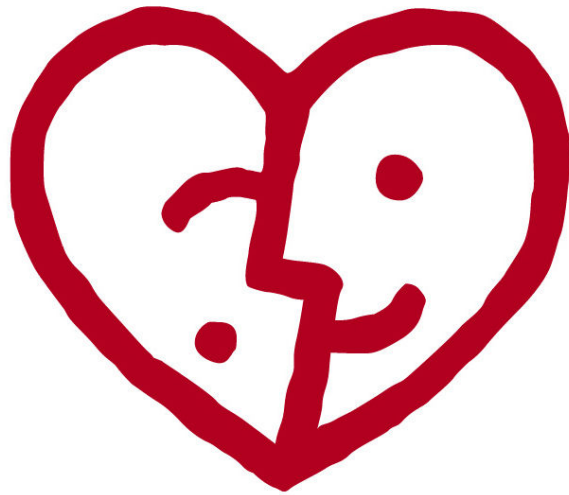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취 선 .....

##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04.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

제43회 정기포럼 자료집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

---

발행일 : 2004. 11.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o@hanmail.net

---